

5월 25일은 '차의 날'

차 향기 음미 전통문화·불심 가꾸기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많고, 차(茶) 마시기를 좋아하는 나라는 흥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이다.

오는 25일은 제15회 '차의 날' 신라 김대렴 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임무수행시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일대에 심으면서 시작된 우리 차 역사는 올해로 1천1백67년이 된다. 매년 5월25일이 '차의 날'로 제정된 것은 민족의 차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한국 차문화를 창조, 보급한다는 뜻에서 햇차가 나오는 시기에 맞춘 것.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차의 날을 맞아 본사를 비롯 <관련사 3편> 전국 차 동우회 및 차 관련 단체들은 차밭을 찾거나 차문화 콘잔치를 마련, 다채롭게 펼친다.

▲(사)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

만들기등으로 펼쳐져 차문화와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뿌리의식을 새롭게 조명했다.

특히 차음식의 상품개발과 대중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차음식 경연대회에서는 차를 이용한 음식들이 다양하게 출품돼, 차음식 문화의 새장을 열었다. (02)701-0475

▲(사)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는 오는 25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제15회 차의 날 기념, 차의 날 콘잔치'를 마련한다.

차문화에 따르는 전통예절을 고찰, 혼탁해져 가는 현대생활에 있어서의 예절과 질서의식 함양과 차문화의 보급에 목적을 둔 이날 행사는 올해의 명차 선정과 함께 참가한 각 차회 회원들의 동시 행다발표 및 다식만들기와 시음·시식도 이어진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5일 및



◇한국 차인연합회 회원들이 창경궁 내에서 행다시연을 하고 있다.

다례·차음식 만들기·차밭 기행 등 행사 '풍성'

원홍)는 지난 21일 광주 금호문화회관에서 한국차문화협회 호남 사범회 주관으로 '제6회 전국 차인 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길놀이에서 이어 '민족문화의 다도'에 대한 원홍 이사장의 차문화 강의와 국악 한마당, 행다(차우리기 및 예절) 시연, 녹차무로시음, 차

이한 성년의 날을 기념 '성년다례의식'을 펼칠 예정이어서 이채롭다. (02)734-5866

▲진주 차인회(회장 류범형)는 25일 '김대렴 공 차 시배 제1167주년 추모 행다례 개최'를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마련한다.

김대렴 공의 업적을 기리는 이날 행사는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 차인회가 차의 날을 기해 매년 마련하는 행사로 진주 차인회 회원가족, 차동우인, 차 재배 동우인들이 참여한다.

한편, 희망자에 한해 하동 제다공장 및 조계산 선암사 야생 차단지지를 견학

하고, 낙안민속마을에서 행다를 시연한다. (0591)42-5700

▲(사)한국차생활문화원(원장 김승희)은 오는 27일 오후2시부터 덕수궁경내에서 '차문화 콘잔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차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2, 3부 학술 강연 및 국악한마당, 차떡과 함께하는 차잔치로 마련된다. (02)732-1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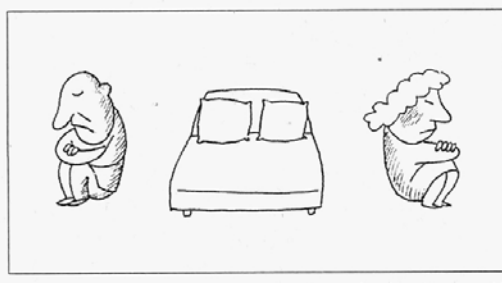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결혼한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부부가 찾아와 무엇이 원인이지를 명확하게 말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유지해 내기 어려운 위기에 부딪혔

한 것들이며 또 일치하지 않는 진술들이 많았다. 사소하기로 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런 일들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인 경우가 많았다.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한쪽에선 기억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한쪽은 원한에 가까운 감정을 지니지만 다른 한쪽에선

일이 있었어도 그걸 가지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무슨 일이고 금방 풀 어지지는 않는다. 10년 세월을 함께 살면서 쌓여진 골짜기들이 어떻게 몇마디 말들을 주고 받았다고 풀이될 수가 있겠는가. 부부간에 치료자라는 중재자를 가운데 두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보다 진실하게 표현하면서 직면하고 그 사건들의 사



로 나의 화 때문이군요. 나는 거절을 받으면 무조건 화부터 냅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 이...

치료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를 대할 때 치료를 끝마쳐도 된다. 그 이유는 환자가 치료적인 계우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계우침은 마음을 비운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다.

이런 후 건강칼럼

<23>

정신치료

다는 하소연을 하면서 정신치료를 받으려 왔다. "어떤 문제가 두부의 결혼생활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부부가 대답한 대답의 내용은 대개가 사소

자기 주장보다 이해심 갖고 마음 비우면 완치

같은 내용의 사건을 이미 잊었거나 기억을 한데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때 그일은 눈을 감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쪽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 "글쎄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명 그런

정을 공감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중재자가 없다면 그들 부부는 같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경직되어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노력 보다는 오히려 자기 말의 합리화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

의 여유가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이 내가 설 수 있다면 이 환자들은 적어도 함께 그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그건 전적으로

만 화

법구경

이진이의 장
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이향원



현대불교 '茶 문화' 대잔치 (24~28일 녹수청산)

그윽한 차 향기로 맑은 佛心을

5월 25일 차의 날을 맞아 현대불교가 다채로운 차문화 대잔치를 마련합니다. 그윽한 차향기로 건강과 맑은 불심을 가꾸는 이 잔치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시음·차밭 기행

- 차의 날 기념 강좌 (1)
 - 주제: 한국 불교와 차문화
 - 강사: 선혜 스님 (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 24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 차의 날 기념 강좌 (2)
 - 주제: 차 예절
 - 강사: 감승희 (차생활교육원장)
 - 일시: 26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녹수청산

- 다구 전시판매 및 시음회
 - 일시: 24일~26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녹수청산
 - 유명 다구제작인의 다구가 차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생산가로 보급됩니다.



현대불교 우리문화 체험여행

— 그 첫번째, 지리산 차밭 기행 —

현대불교신문은 본지 구독자와 불자 그리고 우리차 애호가들을 위하여 차밭 기행을 실시합니다. 차의 주산지 중 하나인 지리산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에서는 '햇차'를 즐기면서 찻잎 따기, 찻잎 뒤기를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녹향 그윽한 차밭에서 대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차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1995년 5월 27일(토) ~ 5월 28일(일)
- 장 소: 지리산 차밭 (경남 하동, '지리산 차전지')
- 출 발: 1995년 5월 27일(토), 오후 10시 현대불교신문사(조계사 부근) 앞
- 주요행사: 쌍계사 참배, 다례 시범, 작설차 만들기 시범, 작설차 채취 실습, 작설차 만들기 실습 * 작설차 채취, 만들기 대회도 함께 합니다.

* 현지 차밭은 토지의 무대(평사리)인 하동군 악양면이므로 소설 '토지'의 현장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가비: 40,000원 (현대불교 구독자는 35,000원)
- 참가방법: 전화 신청 후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 023-25-0007-617(국민은행) 참가자 전원에게 현대불교신문 1개월 구독권과 다도 안내서, 햇차(100g)를 기념품으로 드립니다.
- 문 의: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737-8881, 722-4162)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